

이야기로 배우는 이순신의 여러 모습

이내원
2018 년 8 월

충무공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은 큰형님 이희신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분은 1597 년 정유재란의 해에 작은 아버지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들어와 주로 서류와 명나라 수군과의 관계를 맡아 훌륭히 해 냈습니다.

이 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숙부(작은 아버지) 이순신 장군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자랐습니다. 커서는 총명하여 국가시험인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형조정랑(법무부 국장급)에 이르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후에는 장군의 어린시절 이야기와 공무중에 겪었던 사건들을 합하여 이충무공행록(李忠武公行錄)이라는 귀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이 행록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생>

조선 인종임금 첫 해인 1545 년 음력 3 월 8 일(양력 4 월 28 일), 그때 이름 한성부 건천동(乾川洞 - 마른내) - 현재 이름 서울시 중구 인현동 1 가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이 때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이 50 이 되면 북쪽지방에서 대장이 되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태어날 때 그 어머니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참판공 이백록(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이 나타나 「이 아이가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을 순신(舜臣)이라 하라」 라고 하셨다고 아버지 이정(李貞)에게 말하여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놀때마다 진치고 싸우는 병정놀이를 하였는데 친구들이 모두 순신을 대장으로 떠 받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두 분 형을 따라 서당에 다니며 유학(한문) 공부를 하였는데 공부도 잘하여 성공할만 하였지만 늘 붓을 버리고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무과시험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 당하다>

21 살가 되는 1565 년 이순신은 보성 군수를 지낸 무장(장군)의 외동딸 상주 방씨(常州 方氏)와 결혼했습니다.

22 살 되는 겨울에 무예(무술)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팔 힘과 말타고 활쏘기에서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성품이 바르고도 늠름하여 친구들이 이순신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공경했다고 합니다.

스물여덟살(28 세) 되는 가을에 군인장교를 뽑는 국가시험인 훈련원별과무과시험 중 말 타고 달리며 활쏘기 도중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왼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한쪽 발로 일어나 옆에 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그 껍질을 벗겨 혼자서 부러진 다리를 동여매고 일어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불합격 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실격으로 말미암아 이순신은 4 년 뒤인 서른 두살(32 세) 때 비로서 병과(丙科) 4 등(29 명 중 12 등)으로 합격하여 무인(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권세있는 집안을 멀리하는 결백한 마음씨>

흔히 보통의 사람들은 권세있고 힘있는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 그 주변을 맴돌거나 눈에 띄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젊을 때나 초급장교 시절부터 그와는 반대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유명한 유학자인 율곡 이이가 공무원의 최고인사권자인 이조판서로 있을 때 자기와 성과 본이 같은 이순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건천동 친구로 좌의정(부총리)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유성룡 대감을 통하여 한번 만나 보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반응은 전혀 엉뚱하였습니다. 「울곡과 나는 같은 덕수이씨(德水李氏) 집안이니 한번 만나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가 이조판서라는 인사권자로 있는 동안에는 적절치 못한 일이요」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존중하는 결백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순신이 오늘날의 육군본부와 같은 훈련원에 근무할 때 자기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병조판서(국방장관) 김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라는 군관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첩(둘째 부인)이 낳은 서녀(庶女)를 이순신의 첩으로 주고자 중매장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좋아하기는 커녕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있는 집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까 보냐」하며 그 자리에서 중매장이를 되돌려 보냈다 합니다.

이처럼 권문세가-권세와 힘있는 집안과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결백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직속 상관의 옳지 못한 부탁을 거절한 이순신>

훈련원에는 이순신의 직속상관인 국장급의 병조정랑 서익(徐益)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승진심사 할 때가 되자 서익은 옳지 못하게도 자기 아는 사람을 순서를 뛰어넘어 승진시키려고 담당자인 이순신에게 서류를 꾸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렇게하면 마땅히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일로 서익은 자기 부하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입소문이 훈련원에 퍼져 나갔고 이순신이라는 뜻내기 봉사는 호랑이같은 상관에게도 굽히지 않는 의기있는 장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익은 이 때의 창피로 앙심을 품고 뒷날 이순신을 거짓 평가보고서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내내 뚝뚝한 길로 나아 가시어 결국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셨습니다.

<검소한 생활태도로 나라의 재물을 아끼는 이순신>

충청도 서산의 해미읍성에서는 충청병마사(지역 사령관)의 부관이라 할 수 있는 권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숙소에는 옷과 이부자리(이불) 밖에 없는 청빈한(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효도를 삶의 도리로 생각하는 유교사상 때문에 군대에 근무하는 장정들에게도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보고 오게 하는 근친휴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식량이 몹시 귀한 시대이다 보니 휴가기간에 자기가 먹을 식량을 병영(부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갔다가 혹시 남으면 돌아와 반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남은 식량을 꼬박꼬박 어김없이 반납했다고 합니다.

누가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고지식하게 군대의 규칙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 이순신의 태도에서 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철저한 준법정신을 보게 됩니다.

<객사에 서 있는 오래된 오동나무를 지켜 낸 이순신>

36 세 때 이순신은 전라도 고흥에 있는 작은 해군기지의 수비대장이라 할 수 있는 발포만호(鉢浦萬戶)가 되시어 처음으로 바다를 지키는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이 발포만호 객사(관사) 뜰에는 오래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순신의 직접 상관이며 사령관격인 좌수사 성박이 이 오동나무를 베어다 거문고를 만들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것은 관청의 물건이요 또 여러 해 길러 온 것을 하루 아침에 베어 버릴 수 없다」고 사람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좌수사 성박이 부하 장교에게 창피를 당하고 화가 잔뜩 났을 상황은 보지 않았어도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융통성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순신 자신도 주위의 따돌림과 모함으로 고달픈 생활을 이어갔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서익의 보복으로 억울하게 파면당한 이순신>

발포만호로 2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38 세 되던 해의 일입니다. 3 년전 서울 훈련원봉사 시절 이순신에게 양심을 품었던 서익이 이번에는 서슬퍼런 군검열관인 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이 되어 이순신의 발포수영을 조사 나왔습니다.

서익은 가슴에 응어리진 분을 풀고자 이순신의 군비정비가 부실하다고 거짓 보고하여 이순신은 잘못없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은 모두 이순신의 군비정비가 저렇게도 훌륭한데 훈련원의 양값음을 받았다고 수근 거렸습니다.

<화살통 사건과 이순신의 지혜>

같은 해 여름 이순신은 다시 서울 훈련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정승(장관급) 유전이 이순신에게 좋은 화살통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활을 쏘는 기회에 그것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화살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지만 남들이 대감의 그 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며 또 제가 그 통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제가 더러운 지탄을 받을까 민망합니다.」라고 말하니 유정승도 깨닫고 「그대 말이 옳다」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순신은 정중하면서도 깊은 생각으로 상대가 진심으로 깨닫고 잘못을 고치게 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남솔이라는 국법을 알면서도 어긴 이순신>

남솔(濫率)이란 조선시대 관원이 발령을 받고 임지로 갈때 너무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죄목 이름입니다. 딸린 식구가 많으면 식량과 물품 등 관청의 물자를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전라도 정읍현감으로 발령을 받고 떠날 때 이 남솔이라는 국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위로 두분 형님 희신과 요신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 자식들을 모두 맡아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남솔이라고 비난하자

이순신은 「내가 식구를 많이 데리고 온 죄를 지을지언정 이 의지할데 없는 것들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다」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생각에는 남술의 취지는 관청물품의 남용을 막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지켜주면서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이 바른 처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불차탁용(不次擢用) 2 등에 뽑히다>

이순신이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근무할 때 여진족의 습격을 적은 수의 군사로 잘 막았지만 북병사 이일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1차 백의종군에 처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4세 때 여진족 본거지를 소탕하는데 공을 세워 윤 6월에는 백의종군이 해제되어 아산 본가에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어리석은 임금으로 소문난 선조 임금이 평생 가장 훌륭한 결정이라고 할만한 불차탁용을 선포(발표)했습니다. 불차탁용이란, 있을지도 모를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뛰어난 장수감을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특별 추천하라는 비상 어명(임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순신은 특별 후보 2등으로 뽑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로 임명되지는 않고 다음해 정읍현감이 되어 2년을 근무한 뒤에야 비로서 전라좌수사로 바다를 지키는 장군의 반열에 올라 일본의 침략을 막게 되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전쟁 준비>

이순신 장군이 육지의 정읍현감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여수의 전라좌수사로 특별 임명된 때는 1591년 2월 13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부산으로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킨 날짜가 1592년 4월 13일이었으니 이순신 장군에게는 1년 2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순신 장군께서는 철저한 준비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 믿고 군사를 훈련하는 한편 무너진 성곽과 봉화대(신호대)와 낡은 배를 수리하고 전혀 새로운 무기로 일본의 조총을 고덕없이 막아내는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른 탓으로 신기하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전인 1592 년 4 월 12 일 일기에 새로 만든 거북선에서 화포(대포) 쏘는 실험을 하셨다고 쓰셨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다행입니까? 시간을 아끼며 준비를 철저히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께서는 준비를 마치자 경상도로 멀리 항해하여 1592 년 5 월 7 일 첫째 해전인 옥포해전으로 시작하여 1598 년 11 월 19 일(양력 12 월 16 일)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도망치는 일본군을 맹렬히 쳐부수다 일본의 조총을 맞고 전사하실 때까지 수십차례의 해전을 모두 이기시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의 해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한산도 해전 - 조선 수군의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 준 해전
2. 부산포 해전 - 한산도 해전에서 참패한 일본군이 조선 수군과의 싸움을 피하기만 하자 조선 수군은 일본의 본거지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원정공격
3. 명량 해전 - 일본의 속임수로 선조 임금의 이순신 장군을 파면하고 대신 임명한 원균 장군이 참패하여 조선 수군이 전멸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순신 장군이 다시 기적의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구해 낸 해전
4. 노량 해전 -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으로 가장 크게 이겼으나 이순신 장군께서 아깝게 전사하신 해전
- 5.

<어리석은 선조 임금, 일본군에 속아 이순신 장군을 파면하고 처벌하다>

남해바다를 굳건히 지켜 일본의 군수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바닷길을 틀어막는 이순신 장군을 그대로 두고는 일본으로서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속임수를 써 이순신을 끌어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선조 임금을 속여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게 만들어 파면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대마도 출신 이중간첩 요시라는 자기네 고시니 부대와 양숙인 사납기로 이름이 높은 가토기요마사가 1 월 10 일경 대마도를 떠나 울산 서생포로 건너 올 예정이나 때를 맞추어 바다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는 이순신 장군을 내어 보내면 힘 안들이고 가토를 잡아 올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한 꼬임이었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간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닷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임금님의 명령이 죄없는 조선 수군 2 만명을 몰살시킬 잘못된 명령이라고 판단하고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파면하고 옥에 가두고 대신 욕심 많은 원균 장군을 통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속임수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큰소리치던 원균 장군도 대마도 출전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미적거렸지만 선조 임금의 재촉에 못이겨 조선 수군 전체를 이끌고 출전했지만 일본군의 전술에 말려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자기도 아들과 함께 일본군의 칼에 맞고 죽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조선 수군은 이미 전멸하다시피 되었고 일본 수군은 드디어 남해바다를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끝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달리 대책이 없는 선조 임금은 정승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백의종군(계급없이 흰옷을 입고 근무하는 별의 한가지) 중이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재임명하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사를 명량이라는 좁은 물목을 이용하여 감당하며 10 배나 많은 일본군을 죽을 각오로 싸워 물리쳐 다시금 나라를 살려 냈습니다.

<명나라 군사의 행패를 처벌한 이순신 장군>

명량에서 패잔병을 끌어 모아 기적의 승리를 이룩한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있던 통제영이 원균의 칠천량 패전 때 불 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통제영을 고금도에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고금도는 전라도 강진 남쪽의 장흥반도와 완도 사이에 끼어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마지막 해인 1598 년 7 월 명나라 수군 도독(사령관) 진린이 거느린 5 천명의 구원군도 고금도로 들어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를 깔보는 명나라 병사들이 섬 안의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때리는 행패가 심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행패를 막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진린의 수군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온 상국(우리보다 높은 나라)이나 항의를 해서 화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정한 이순신 장군께서는 부하들을 불러 놓고 진(부대)을 옮길 것이니 이동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막을 걷고, 기둥을 빼고, 짐을 싸고 나르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 병사들도 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그 이유를 몰라 자기네 대장인 진린 도독에게 보고하자 진린도 눈이 휘둥글해져 이순신 장군께 달려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 대장으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여 편히 살도록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명나라 군사들의 행패가 심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른 섬으로 진을 옮기려 하는 것이요.”

순간 진린은 이순신 없는 주둔생활이 몹시 고달파 질것기 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지내자고 사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번에는 못 이기는듯이 “한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이동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진 진린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재촉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는 명나라 병사는 내가 직접 잡아다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망설이던 진린은 이순신 없는 고금도 생활이 너무 걱정되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명나라 병사들이 전과같이 행패를 부리자 지체없이 잡아다 처벌하니 명나라 병사들의 행패가 씻은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명나라 도둑 진린이 화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도 우리 백성의 고통도 덜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꾀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조선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상국(높은 나라) 명나라 중국사람을 직접 처벌하신 기록을 세우신 것입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현충사와 소년시대부터 살았던 옛 집터에 가면 붉은 기둥으로 기와지붕을 받히고 그 안의 천정 아래로 검은 바탕에 흰글씨로 한자를 단정하게 많이 써 넣은 간판 모양의 액자가 걸려있는 정려(旌閭)가 있습니다.

다섯 정려 중 가장 큰 이순신 장군의 액자에는 「유 명수군 도독.... 이순신 지려」라고 시작과 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명나라 수군 도독이자 조선의 일등공신 이순신의 정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해군사령관격인 수군 도독이 되셨을까요?

명나라 신종황제는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을 물리치시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나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에 비록 죽은 후의 표창이지만 도독의 영예와 팔사품이라는 여덟가지 선물을 보내어 극진한 예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침략을 일삼는 일본은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에게도 골칫거리 였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그 근심거리를 확실하게 끊어 내시어 임진왜란 이후 200 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때 이미 조선을 넘어 외국인에게도 칭찬과 감사를 받는 국제적 인물이 되셨던 것입니다.